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목재문화에 관한 연구*1

허 경 태*2†

Sociological Approach of Wood Culture*1

Gyongtae Hur*2†

요 약

목재문화는 시멘트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목재문화가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는 공학적 연구만이 아니라 사회학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혀 시도된 바가 없는 목재문화의 사회학적 측면을 구조 기능적, 체계 기능적, 갈등적, 사회 변동적 측면에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목재문화의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조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체계는 최상위의 인식체계, 그 다음의 제도체계, 생활체계, 기술체계의 4가지 부분체계로 이루어진다. 이들 부분체계는 목재문화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위성·타당성·현실성·발전성의 기능을 발휘한다.

체계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목재문화체계는 목재 효용성의 인지와 전과과정에 따라 개인적 체계와 조직적 체계, 이 두 가지를 망라하는 사회적 체계의 3가지로 구성되며, 갈등측면에서 볼 때 사회는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양상에 따라 고유의 목재문화는 쇠퇴하고 시멘트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시멘트문화가 쇠퇴하고 목재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고유의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목재문화의 유형을 문화변동의 측면에서 분류하면, 목재문화에서 시멘트문화로의 변동,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의 변동, 목재문화 자체의 변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변동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미시적 변동, 중간적 변동, 거시적 변동으로 분류된다.

이상과 같이 목재문화를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공학적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에 학계에서 "목재문화론" 또는 "목재문화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를 바란다.

ABSTRACT

Wood-culture is new paradigm which is substituted for the cement culture, and the study of wood-culture should keep pace with not only the study of a engineering science but also a sociological

* 1 접수 2004년 12월 14일, 채택 2004년 12월 22일

* 2 산림청 북부지방산림관리청, Northern National Forest Office, Forest Service, Daejeon Korea

† 주저자(corresponding author) : 허경태(e-mail: horgt@foa.go.kr)

study to form a theo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of sociological approach of the wood culture which have not yet tried at home and abroad; in view of structural-functionalism, systemical-functionalism, conflict theory, social-change theory by analyzing cases in Korea.

In view of structural-functionalism, social system consists of cognition system, institution system, life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These sub-systems fulfill the function of what-should-be, reasonability, reality and development.

In view of systemical-functionalism, according to the acknowledgment and spreading process of the wood usefulness, wood culture system consists of the individual system, organizational system and the social system.

In view of conflict theory, the society which has the wood cultur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one is society which the traditional wood culture is declining and the cement culture is spreading. The other one is society which the cement culture is declining and the traditional wood culture is spreading. Another is Finally the society which the two type balance with.

In view of social-change theory, the societ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one is society which the wood culture is proceeding to the cement culture. The other is society which the cement culture is proceeding to the wood culture. Another is society which the wood culture changes itself. Finally, from a view of changing level, the society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micro-change, the middle-level-change, and the macro-change.

It's need to study wood culture systemically in view of engineering and sociological science. And then it will be possible to make 'wood culture theory system'.

Keywords: 목재문화, 사회과학이론, 접근방법

1. 서 론

1995년 필자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장 시절에 목재수요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목재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 처음으로 목재문화진흥정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2003년에는 목재문화를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재문화포럼」이 사단법인으로 창립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목재문화」의 개념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 연구된 "목재가 인체·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에 근거를 두고 제시한 것으로서, 목재문화가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학문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전혀 시도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목재문화의 학문적 체계를

사회학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목재문화의 개념과 특성

2.1. 문화의 개념

영국의 에드워드 타일러(Edward Tylor)는 그의 저서 「원시문화」에서 "문화는 사회의 성원인 인간에 의해 습득된 지식·신념·기술·도구·도덕·법·관습과 그 밖의 능력·습관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라고 정의하였다(Tylor, 1871). 그러나 크로버(Kroeber)와 클라켄(Kluckhohn)은 공저 '개념과 정의의 상세한 재고찰'에서 "문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그 근간 또는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념의 체계"라고 주장하였다(Tylor, 1871).

이와 같은 문화의 물질적·정신적 양면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문화란 특정한 사회의 성원들이 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성원간에 공유하고 습득되고 사회적으로 전승된 사물과 지식, 언어와 가치관, 규범(기대) 등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2. 목재문화의 개념

「목재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양식 중에서도 주거·생활에 목재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문화이다. 목재문화를 에드워드 타일러의 정의에 따라 물질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면, '목재를 사용하는 생활의 양상'으로서 "목재라는 재료를 기초로 생활하는 사회의 생활양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로버와 클라컨의 정의에 따라 이념과 정신을 중심으로 개념화하면, '목재를 사용하는 생활을 위한 양상'으로서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을 위하여 목재를 당연히 사용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정신양식"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면성을 고려하여 목재문화의 개념을 정의하면, 「목재문화란 목재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재사용이 일상화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규범·지식과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3. 목재문화의 특성

첫째, 심리적 측면에서 목재문화는 자연과 접하고 싶어하는 개인의 생활에 만족감과 가치감을 충족시켜 준다. 둘째, 생리적 측면에서 목재문화는 목재의 시각적 안정성, 물리적 탄력성, 촉감의 부드러움, 온도도 조절기능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목재문화는 목재를 이용하는 물질적 문화로서, 전체문화의 일부분인 부분문화, 주거·생활·교육문화의 하위문화이다.

이와 같은 목재문화를 산림문화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산림문화는 산림·숲이라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나, 목재문화는 산림·숲에서 생산된 목재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산림문화는 산림 안의 자연공간에서 산림을 즐기고 누리는 자연문화이나, 목재문화는 산림 밖의 생활공간에서 목재의 가치와 효용을 향유하는 생활문화이다. 셋째, 산림문화는 산림을 보전함으로써 이루어지나, 목재문화는 목재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넷째, 산림문화는 주거생활을 떠나 여가·휴양·등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나, 목재문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생활·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섯째, 예술체계로 볼 때 산림문화는 주로 문학을 통하여 표출되나, 목재문화는 주로 공예를 통하여 표출된다. 여섯째, 학습체계로 볼 때 산림문화는 주로 관찰과 탐방을 통하여 습득되나, 목재문화는 주로 실습과 제작을 통하여 습득된다.

2.4. 목재문화의 패러다임

목재문화는 지금까지 시멘트문화가 지배해 온 주거·생활·교육환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준거틀을 형성하는 패러다임이다. 목재문화는 기존의 시멘트문화에서 벗어나 목재라는 틀을 활용하여 현상의 문제를 제기·탐구·실천하게 하는 작용모델이며, 사회구성원에게 목재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공유하는 방향을 일러주는 지침이다. 목재문화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인 몰인간화·물질우선주의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생활의 패러다임이다. 또한 정서안정과 다양한 개성개발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다.

3. 목재문화에 기초가 되는 사회학 이론

3.1. 사회체계 이론

3.1.1. 구조기능이론(structural functionalism)

구조기능이론은 사회의 본질을 공통된 가치관에 의하여 통합된 사회라고 보고, 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단위 또는 부분이 합성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

(system)라고 보는 이론으로서 현대 사회학 체계를 확립한 파슨스(Parsons)의 이론이다. 파슨스는 '사회적 행위의 구조(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라는 저서에서 사회 내부의 부분들이 전체사회의 형평의 유지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분석하면서, 사회를 4개 차원의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즉, 최상위 차원으로서 가치관·신념·규범의 상징들로 이루어진 문화체계(cultural system), 그 하위차원으로서 정치·경제·사법 등 제반 기관의 활동을 통합하는 사회체계(social system), 그 다음 차원으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품성에 관련된 인격체계(personality system), 최하위의 차원으로서 인간의 생체를 의미하는 행동유기체(behavioral organism)가 그것이다. 이때 문화체계는 사회체계에, 사회체계는 인격체계에, 인격체계는 사람의 행동에 각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파슨스에 의하면, 이 4개의 체계는 사회 전체의 본질적 지향점인 형평의 유지를 위하여 잠재성, 사회통합, 목표달성, 적응의 4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각 체계는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특히 한 가지 기능씩에 전문화되어 있다. 문화체계는 유형유지와 긴장관리에, 사회체계는 사회통합에, 인격체계는 목표달성에, 행동유기체는 적응기능에 전문화되어 사회의 형평유지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Kang, 1991).

3.1.2. 체계기능이론(systemical functionalism)

체계기능이론은 루만(Luhman)이 정립한 사회체계이론으로서, 사회체계의 유형으로서 상호작용체계, 조직체계, 사회적체계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상호작용체계'는 개인간의 관계로서 단순하고 갈등과 긴장에 취약하며 의사전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사회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적용하기 어려운 체계이다. 둘째, '조직체계'는 개인과 조직 또는 조직과 조직간의 관계로서, 복잡한 사회에서 필수적인 체계이다. 셋째, '사회적체계'는 상호작용체계와 조직체계를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개인과 조직이 접근가능한 모든 의사소통의 포괄적 체계이다. 사회적체계로는 정부·법률·교육·경제·과학 등을 들 수 있다(Kim, 1980).

3.1.3.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갈등이론은 사회는 평형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동적인 변화상태에 있으며, 희소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의 갈등은 정상적인 것이며,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질서 상태는 사회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조정된 결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갈등이론은 각종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불화가 야기된다고 보는 점에서 사회를 균형상태의 안정된 체계로 보는 구조기능이론과 구별된다(Terner, 2001).

3.2. 사회변동이론

사회체계의 변동과정은 사회가 안정상태에 있다가 긴장이 증대되면 안정상태로부터 괴리되고 다시 긴장이 감소되면 소정의 안정상태로 돌아오거나 새로운 정상상태로 이행하는 피드백(feed back)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회체계의 위상은 정상상태, 적응과정, 구조변동으로 구분된다.

사회변동을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론이 문화변동이론이다. 문화변동이론에 의하면, 문화변동의 요인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다. 내적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으며, 외적 요인에는 문화의 전파, 문화의 접촉, 문화의 혁신이 있다.

4.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접근방법

4.1. 구조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접근방법

4.1.1. 구조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체계

목재문화는 자체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4가지 차원의 부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에 목재사용에 관한 가치관·신념 등 정신적 가치로 이루어진 인식체계(Cognition

System), 그 다음에 목재사용에 관한 경제적·법령적 규칙 등 규범적 사항으로 이루어진 제도체계(Institution System), 그 아래 목재사용을 주거·생활 등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생활체계(Life System), 마지막으로 목재사용이 가능하게 연구·개발하는 기술체계(Technology System)로 구성된다. 목재문화는 이들 상호 의존적인 4가지 부분체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체계이며, 4가지 부분체계는 서로 조화되고 협력하면서 긍정적·발전적인 방향으로 전체체계로서의 목재문화를 형성해 나간다.

이 4가지 부분체계는 목재문화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위성·타당성·현실성·발전성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각 체계는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특히 한 가지씩 전문적인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당위성'이란 목재사용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당연히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구성원의 가치지향적 기능이다. '타당성'이란 목재사용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법령·규칙 등 일정한 규율을 정하고 그 규율에 따라 목재가 사용되는 규범지향적 기능이다. '현실성'이란 실제로 목재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일상적 재료로 사용하는 생활지향적 기능이다. '발전성'이란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목재문화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미래지향적 기능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인식체계는 '당위성'의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계 있으며, 제도체계는 '타당성'의 기능에 가장 관계 있고, 생활체계는 '현실성'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며, 기술체계는 주로 '발전성'의 기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각 부분체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목재문화는 그 개념과 합치되는 바람직한 문화양식이 될 수 있다. 목재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규범',

목재사용이 일상화된 '생활양식', 목재문화를 한 단계 발전된 문화양식으로 확대하게 하는 '지식'이 어우러져 「목재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목재사용이 일상화된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가치관·규범·지식과 생활양식」으로서의 목재문화가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4.1.2. 부분체계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

4.1.2.1. 인식체계가 형성되는 과정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심화되면 사회구성원은 시멘트의 대체재료인 목재를 찾게 되는데, 목재가격이 시멘트보다 비싸기 때에는 처음에는 사용하지를 주저한다. 그러나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커짐에 따라 목재사용의 효용이 비용보다 많게 되면 목재를 구입할 의사가 생기게 된다. 이 목재구입에 대한 비용지불의 의사가 바로 목재문화의 '당위성'이 된다. 이러한 가치관은 목재를 사용하는 생활이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신념으로 발전하여 목재문화의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4.1.2.2. 인식체계가 제도체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과정

목재문화의 인식체계가 형성되면 기존의 시멘트문화를 유지하려는 저항과 새로 형성된 목재문화 인식체제로 변화하려는 욕구 사이에 갈등이 계속된다. 목재문화로의 변화욕구가 커지면 현행 제도로는 변화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이 시멘트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목재문화 형성의 '타당성'이 된다. 이에 따라 목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목재문화의 사회적 제도체계가 정착된다. 목재문화의 제도체계는 반대로 인식체계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도체계는 사회가 목재문

Table 1. Sub-system and main function of wood-culture system

sub-system	main function	character of function
cognition system	what should be	value-oriented
institution system	reasonability	rule-oriented
life system	reality	life-oriented
technology system	development	future-oriented

화의 효용을 인정한 결과이므로 목재문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던 사회구성원도 제도체계의 공신력을 믿고 목재문화에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며 목재문화의 당위성을 인정하게 된다.

4.1.2.3. 제도체계가 생활체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과정

현대사회의 모든 경제활동은 경제적·법령적 규범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목재에 관한 경제적·법령적 제도체계가 정비되면 목재사용을 지원·조장하여 목재사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목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목재문화의 생활체계가 정착된다. 목재문화의 생활체계는 반대로 제도체계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제도는 사회구성원의 생활양식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목재 사용이 일상화되면 이를 합리화·체계화하기 위한 경제적·법령적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어 목재문화의 사회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4.1.2.4. 생활체계가 기술체계에 상호영향을 미치는 과정

목재문화가 생활화되면 목재제품의 공급과 유통량이 증가하며, 이때 발생한 이윤은 목재자본으로 축적되고 여유자본은 기술개발에 투자된다. 기술개발 투자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품질이 개선되며, 신용도개발과 품질개선은 다시 수요증가로 이어져 목재제품 판매가 증가된다. 그에 따른 이윤이 축적되어 여유자본을 형성하면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며, 목재문화의 기술체계가 정착되면 목재문화의 꽃을 피우고 계속 발전하게 된다.

4.1.3. 목재문화의 유형분류

4.1.3.1.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발전·확산가능성도 낮은 사회

이 유형은 인식체계·제도체계·생활체계·기술체계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이다. 이 사회는 목재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재를 사용할만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연

구와 기술개발 투자도 적어 목재문화가 발전될 가능성도 낮고 확산될 가능성도 적은 사회이다.

4.1.3.2.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나 발전·확산가능성이 낮은 사회

이 유형은 생활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인식체계·제도체계·기술체계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이다. 이 사회는 과거부터 주거·생활에 목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목재문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목재사용의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도 적은 사회이다.

4.1.3.3.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발전·확산가능성이 높은 사회

이 유형은 생활체계는 갖추지 않았으나 인식체계를 갖추고 있고 제도체계·기술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주거·생활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으나 목재사용을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목재사용의 사회적 기반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도 계속 확대되는 사회이다.

4.1.3.4.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발전·확산가능성도 높은 사회

이 유형은 인식체계·제도체계·생활체계·기술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회이다. 이 사회는 목재사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목재사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주거·생활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고,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투자도 계속 확대되는 사회이다.

4.1.4. 구조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모형

구조기능 측면에서의 목재문화를 모형화하여 개념적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C는 인식체계(Cognition System), I는 제도체계(Institution System), L은 생활체계(Life System), T는 기술체계(Technology System)를 말한다. 4가지 부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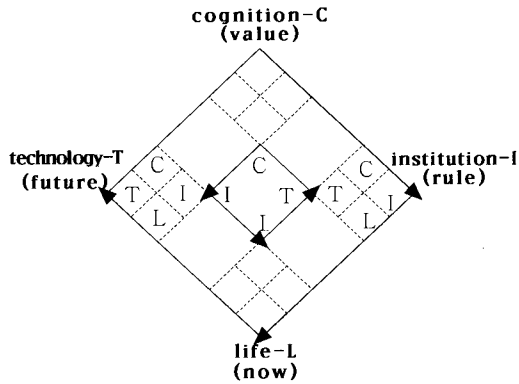


Fig. 1. Function model of wood-culture in structural functionalism.

는 목재문화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위성·타당성·현실성·발전성의 4가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각 체계는 C, I, L, T의 4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만 특히 한 가지씩 전문적 기능을 위주로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목재문화의 하위체계들은 각각 C, I, L, T의 어느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C, I, L, T의 4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인식체계는 주로 당위성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타당성·현실성·발전성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힘들고, 제도체계는 주로 타당성의 기능을 발휘하지만 당위성·현실성·발전성이 없으면 제도화가 어렵게 된다. 생활체계는 현실성의 기능과 더불어 당위성·타당성·발전성이 있어야 확산되고, 기술체계는 발전성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위성·타당성·현실성이 있어야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

4.2. 체계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접근방법

4.2.1. 체계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체계

4.2.1.1. 개인적 목재문화체계(personal wood culture system)

개인적 목재문화체계는 목재의 효용성을 개인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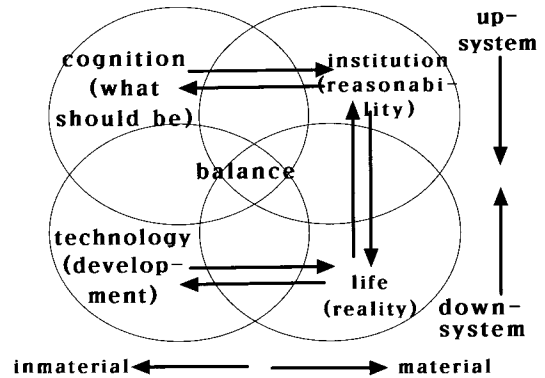


Fig. 2. The relation of sub-system of wood-culture.

각과 경험에 의하여 인지하고 개인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파되는 목재문화체계를 말한다. 이 유형의 목재문화체계는 정리되지 않고 내용이 단순하며, 개인간 상호작용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포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목재문화체계가 커지기 위하여는 보다 정교한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4.2.1.2. 조직적 목재문화체계(structural wood culture system)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는 목재의 효용성을 체계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회구성원이 조직적으로 목재의 효용성을 인지할 때 나타난다.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는 복잡한 내용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논리적으로 재공되기 때문에 지식으로서의 구체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다른 문화와의 갈등과 긴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집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사회구성원에게 전파되고 인지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쳐서 고도로 인위적인 목재문화양식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4.2.1.3. 사회적 목재문화체계(social wood culture system)

사회적 목재문화체계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와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를 망라하여 목재의 효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식·경험·연구의 포괄적인 체

계로서, 많은 개인과 집단의 경험과 연구결과가 서로 얽혀서 전파되고 대부분 사회구성원이 목재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또한 인정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를 목재문화사회(wood culture society)라고 부른다.

4.2.2. 체계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모형

4.2.2.1.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의 선형구조 모형

개인적 목재문화체계는 개인의 감각과 경험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개인적 의사소통에 의지하므로 전달자와 피전달자 개인을 점으로 할 때 두 개인을 연결하는 의사소통체계가 일대일의 선형구조이다. 선형구조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개인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없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정보의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보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다.

4.2.2.2. 조직적 목재문화체계의 평면구조 모형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는 조직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에게 체계적·논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집단끼리의 의사소통체계가 이루어지지만 다면적 정보의 연결은 부족한 평면구조이다. 조직적 목재문화체계에서는 타집단에서 전달받은 정보를 분석하여 다듬어진 정보를 다른 집단에게 전달한다. 이때의 분석은 체계적이므로 정보에 대한 믿음이 강하며, 따라서 개인적 목재문화체계보다 외부의 문화충격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4.2.2.3. 사회적 목재문화체계의 입체구조 모형

사회적 목재문화체계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와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를 포괄하여 서로 얽힌 구조로서 많은 개인과 집단의 경험과 연구결과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면과 면이 이어지고 선과 선이 연결되는 입체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적 목재문화체계는 많은 사람들이 목재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목재를 신뢰하기 때문에 거의 정착된 단계이다. 따라서 외부의 문화충격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며, 외부의 강력한 문화충격이 있어도 별로 축소되거나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입체구조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3. 갈등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접근방법

4.3.1. 갈등측면에서의 목재문화체계

4.3.1.1. 갈등의 원인

시멘트와 목재의 서로 다른 특성에 의하여 두 문화의 기능도 서로 대비된다. 또한 이러한 두 가지 문화의 차이가 서로 갈등을 가져오게 된다. 첫째, 시멘트 문화는 딱딱함을 느끼게 하나 목재문화는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 둘째, 시멘트문화는 회색 위주로서 어두움을 느끼게 하나, 목재문화는 녹색 위주로서 밝음을 느끼게 한다. 셋째, 시멘트문화는 사각형 위주의 획일성을 느끼게 하나, 목재문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성을 느끼게 한다. 넷째, 시멘트문화는 차가움을 느끼게 하나, 목재문화는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다섯째, 시멘트문화는 단조로움을 느끼게 하나, 목재문화는 다양한 무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4.3.1.2. 갈등의 지속

시멘트문화와 목재문화의 갈등은 다음 요인에 의하여 지속된다. 첫째, 시멘트문화가 지배적이거나 목재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와의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면화된 상태로 지속된다. 둘째,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적게 나타날수록, 삶의 질 향상과 정서안정의 욕구가 적게 나타날수록 두 가지 문화가 충돌할 가능성이 적어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셋째, 주거·생활문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갈등의 객관성이 적으며, 병리현상을 수치로 표시하기 어려울 때 갈등현상을 적게 느끼므로 큰 충돌 없이 지속된다.

4.3.1.3. 갈등의 심화

이와 같이 지속된 갈등은 다음 요인에 의하여 심화되고 강렬해진다. 첫째,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은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크게 나타날수록 커진다. 이 경우 변화에의 저항과 변화에의 욕구가 충돌하여 결국 목재문화와의 갈등이 심화된다. 둘째, 목재문화의 기능이 확대되고 목재문화가 확산될수록 두 가지 문화의 갈등이 증대된다. 주거·생활에 있어서 목

재사용이 증가되고 교육에 있어서 폭력·따돌림·나약함과 정서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목재가 자리잡게 된다. 셋째, 두 가지 문화의 갈등이 객관화될수록 갈등이 강렬해진다.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수치화 될수록, 목재문화의 순기능이 실험으로 입증될수록 양문화의 선호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갈등이 강렬해지는 주 요인이 된다.

4.3.1.4. 갈등의 사회적 기능

첫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된다.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 증가는 그 병리현상 해소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목재문화의 도입을 촉진하여 목조주택 건축기술과 목재가공 기술을 발전시킨다. 또한 시멘트문화는 고층화·대형화를 통하여 목재문화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두 가지 문화는 서로에게 자극을 주며,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을 발전시킨다.

둘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규범화가 촉진된다. 시멘트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사회에서 병리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목재문화가 쉽게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목재문화의 제도와 범규를 정비하는 등 규범화가 촉진된다.

셋째, 어느 정도의 갈등은 사회의 적응성과 통합을 촉진시킨다. 시멘트문화와 목재문화가 균형을 유지하는 “정상상태”가 되면 안정된 체계와 다양한 문화양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4.3.1.5. 갈등의 해소를 위한 하이브리드(hybrid) 문화

하이브리드 문화란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적용하여 건축·가구제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이브리드 건축은 주요 구조부에 목재·시멘트·철골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서, 목조·콘크리트·철골건축의 장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혼합형 주거문화를 창조하는 건축방식이다. 하이브리드 가구는 목재·철제·인공재료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문화가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화의 갈등은 목재문화의 개념을 광의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를 목재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소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목재문화는 주거·생활제품에 대부분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협의의 목재문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각종 제품의 일부분을 목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목재문화로 인정하는 광의의 목재문화 개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문화와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공존하는 문화의 균형상태를 이룰 수 있게 된다.

4.3.2. 갈등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유형분류

4.3.2.1. 고유의 목재문화는 쇠퇴하고 시멘트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이 유형은 고유의 목재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으나 근대화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시멘트문화가 근대화의 지표로 인식되어 고유의 목재문화는 쇠퇴하고 모든 부문에서 시멘트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이다.

이 유형의 사회는 시멘트문화의 확산에 따라 병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를 근대화의 부산물로 생각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치유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 결국 근대화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시멘트문화가 정착되지만, 병리현상은 점차 심화되며 사회구성원은 그 병리현상을 느끼지 못하므로 목재문화와의 갈등이 없거나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4.3.2.2. 시멘트문화가 쇠퇴하고 목재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이 유형은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와 정서상의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삶의 질 향상과 정서안정은 시멘트문화와 양립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서 목재문화가 확산되는 사회이다.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클수록, 삶의 질 향상과 정서안정의 욕구가 클수록 목재문화와의 갈등이 강렬해지면서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에 의한 연대조직이 결성된다. 연대조직의 활동이 확대되면 “조직적 목재문화체계”의 단계가 시작된다. 조직적 목재문화체계가 확산되면서 목재에 관한 조사와 연구도 활발해지고 목재의 효용이 체계적으로 밝혀지면서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된다. 이러한 갈등과정

을 거쳐서 두 가지 문화가 서로 핵심적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적 목재문화체계”가 형성된다.

4.3.2.3. 고유의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

이 유형은 근대화가 서서히 추진되면서 주거·생활 부문에서는 고유의 목재문화가 보존되고, 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시멘트문화가 확산된 사회이다. 시멘트문화의 확산에 따라 병리현상이 나타나지만 경제·산업 부문에 국한되고 주거·생활부문에서는 목재문화가 병리현상을 반감시키므로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사회이슈로 떠오르지는 않는다. 주거·생활부문의 목재문화는 그대로 개인적 목재문화체계, 조직적 목재문화체계, 사회적 목재문화체계의 단계를 거쳐 정착된 상태이며, 시멘트문화도 경제·산업부문에 정착된 상태이므로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정상상태”에 이르게 된다.

4.4. 사회변동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접근방법

4.4.1. 목재문화변동의 유형분류

4.4.1.1. 변동과정에 따른 유형

첫째, 목재문화에서 시멘트문화로의 변동이다. 이 유형은 “목재문화는 쇠퇴하고 시멘트문화가 확산되는 경우”이다. 고유의 목재문화가 사라지고, 주거·생활에 목재보다 인공재료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시멘트문화가 정착하게 되는데, 경제개발 속도가 빠를수록 시멘트문화의 확산속도도 빨라진다.

둘째,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로의 변동이다. 이 유형은 “정착화된 시멘트문화에서 목재문화가 확산되는 경우”이다. 시멘트문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인은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이 심화될수록 그 병리현상을 완화하는 자연재료인 목재를 찾게 된다.

셋째, 목재문화 자체의 변동이다. 이 유형은 “고유의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가 동시에 확산되는 경우”이다. 목재문화가 시멘트문화와 접촉하면서 현재의

수준으로는 시멘트문화와의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깨닫고,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재문화를 적응시키며 발전하게 된다. 시멘트문화 역시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된다. 결국 두 가지 문화는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며, 사회 전체의 문화는 발전하게 된다.

4.4.1.2. 변동수준에 따른 유형

첫째, 미시적 변동으로서 이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에 해당하는 변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의 목재문화 경험과 지식이 적고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 경험을 하며 지식을 보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목재문화는 경험과 지식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미시적 변동이 모여 조직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되면 중간적 변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둘째, 중간적 변동으로서 이는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로 나아가는 변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개인이 모여 구체적 지식체계를 갖추고 다른 문화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다른 문화를 가진 조직·집단에게 목재문화를 전파한다. 그 과정에서 목재문화는 사회적 자생력을 키우고 고도의 목재문화양식을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러한 중간적 변동이 모이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변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거시적 변동으로서 이는 “사회적 목재문화체계”로 발전하는 변동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재문화와 다른 문화가 끊임없이 접촉·교류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 단계는 목재문화 전성기로 가는 변동으로서 목재문화 자체의 에너지로 기술발전에 의한 내부변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목재문화가 다른 문화와 균형을 이루는 안정상태에 이르게 된다.

4.4.2. 사회운동에 의한 목재문화의 변동

4.4.2.1. 목재문화운동의 개념

「목재문화운동」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해소하

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생활·교육 전반의 hardware와 software를 목재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새로운 움직임이다. 이를 허버마스의 이론에 따라 정의하면, "목재문화운동이란 시민을 주축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체가 목재문화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일반적 관심사로 증폭시키는 한편, 결집된 의사를 공공영역에 전달하여 목재문화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운동"이다. 한편 이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목재문화운동이란 시민과 목재문화 조직체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의무를 행사하면서 다른 문화 즉,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절차 및 제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4.4.2.2. 목재문화운동에 의한 변동

목재문화운동을 통하여 목재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목재문화운동이 확산될수록 사회구성원의 인식체계가 확립되고, 공론의 장을 통하여 제도화가 촉진될 수 있다. 이러한 목재문화운동을 통하여 초기의 목재문화가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변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5. 우리나라 목재문화의 사례분석

5.1. 구조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유형분석

5.1.1. 1980년대까지의 목재문화 유형

이 시기는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발전·확산될 가능성도 낮은 사회유형에 속한다. 이 시기는 목재문화의 인식체계·제도체계·생활체계·기술체계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이다. 급속히 도시화·공업화로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시되고 시멘트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목재문화라는 용어도 없었고, 목재의 효용성도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목재에 관한 법령·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목조주택은 많지 않았고, 합판 외에는 목재공업이 기초수준에 불

과하여 목재사용을 확대할만한 기술개발이나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시기이다.

5.1.2. 1990년대 이후의 목재문화 유형

이 시기는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전·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유형에 속한다. 이 시기는 목재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인식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 목재사용의 사회적 기반인 생활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제도체계·기술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삶의 질 향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목조주택이 급속히 보급되어 1990년대 중반에는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목재문화" 개념이 정립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웰빙(well being) 붐을 타고 목재마루판 깔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면서 목재의 건강증진과 정서안정 효과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으나, 목재제품의 가격이 시멘트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으로 일반화·생활화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5.2. 체계기능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체계분석

5.2.1. 1980년대까지의 목재문화체계

이 시기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전파되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에 속한다. 목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목재의 효용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으며, 목재의 특징으로 볼 때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추론적인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목재를 사용한 사람이 자신의 감각과 경험에 의하여 목재의 효용성을 인지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의 시기이다.

5.2.2. 1990년대의 목재문화체계

이 시기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의 후반기로서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목재의 효용성을 인지하는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1990년대 초부터 외국의 연구사례를 수집·정리하였고, 1995년에는 '목재문화'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국산재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목재문화 창출방안"이 연구되었다. 또한 1996년에는 "목재가 인체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화하여 책자가 발간되었으며, 목조주택의 증가에 따라 목조건축업체의 자율모임인 '목조건축협회'가 설립되었다.

5.2.3. 2000년대의 목재문화체계

이 시기는 1990년대의 목재문화 확산노력이 결실을 맺어 '조직적 목재문화체계'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사회이다. 2001년부터 목조펜션이 확산되면서 목조건축이 정착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에는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산림청에서 '아름다운 목조주택 선발대회' 등 목재문화 진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목재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재문화포럼'이 창설되었고, 목조건축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국목조건축대전'이 실시되었다. 2004년부터는 목재문화의 체계적 홍보를 위한 '목재문화전시장(우드랜드)'이 청원과 진해에 설치중이고, 학교 교장과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재교실 연수를 실시하는 등 목재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진 단계이며, 여기서 더욱 나아가 목재문화의 제도·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직적 목재문화체계'가 정착되는 사회로 전이하게 된다.

5.3. 갈등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특성분석

5.3.1. 1980년대 이전의 갈등의 특성

이 시기는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이 본격화·표면화되지 않은 단계이다. 아직 목재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시멘트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이므

로 갈등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고 내면화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지 않아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정서적 안정에 대한 욕구도 크지 않았고, 이에 따라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재되어 있었다.

5.3.2. 1990년대의 갈등의 특성

이 시기는 목재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의 욕구가 커지고 신체건강과 정서안정의 사회적 요구가 나타나고,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을 인식하면서 그동안 내재되었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원에 목조주택을 짓고 도시에서 이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점에서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5.3.3. 2000년대 이후의 갈등의 특성

이 시기는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이 심화되고 강렬해지는 단계이다. 이는 행정적으로 목재문화정책이 구체화되고 행정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였으며, 학문적으로는 대학에 목질환경학 강좌가 개설되고, 사회적으로는 목재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운동이 본격화되는 등 목재문화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파트문화로 대변되는 시멘트문화의 병리현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어 병리현상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목재문화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다.

5.4. 사회변동측면에서의 목재문화의 변동수준분석

5.4.1. 1980년대 이전의 목재문화의 변동수준

이 시기는 목재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인이 가진 목재문화의 경험과 지식이 범위가 좁고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단계였다. 따라서 항

상 다른 개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간접적 경험을 하며 지식을 보충하였으므로 목재문화의 변동수준으로 볼 때 미시적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5.4.2. 1990년대의 목재문화의 변동수준

이 시기는 목재의 효용성을 연구한 외국사례를 전파하여 많은 사람이 구체적·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기 시작하는 한편,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 시멘트문화에 대응하는 논리개발이 부족하고 지식체계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간적 변동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5.4.3. 2000년대의 목재문화의 변동수준

이 시기는 개인의 목재문화에 관한 경험과 지식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지고, 목재의 효용성이 전파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목재의 효용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목재문화의 지식체계를 갖추고 목재를 연구하여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자생력을 기르는 단계이며, 이를 통하여 목재문화양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변동하는 단계이므로 중간적 변동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동이 모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거시적 변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6. 결 론

목재문화는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최상위의 인식체계, 그 다음의 제도체계, 생활체계, 기술체계의 4가지 부분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인식체계는 당위성에, 제도체계는 타당성에, 생활체계는 현실성에, 기술체계는 발전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체계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와 조직적 목재문화체계, 이 두 가지를 망라하는 사회적 목재문화체계의 3가지 체계로 구성된다. 또한 갈등측면에서 보면 고유의 목재문화는 쇠퇴하고

시멘트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시멘트문화가 쇠퇴하고 목재문화가 확산되는 사회, 고유의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목재문화는 변동수준에 따라 미시적 변동, 중간적 변동, 거시적 변동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분석하면 1980년대는 구조기능측면에서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발전·확산될 가능성도 낮은 사회유형으로서, 목재문화의 인식체계·제도체계·생활체계·기술체계가 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회이다. 체계기능측면에서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에 속하며, 갈등측면에서는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이 본격화·표면화되지 않은 단계이고, 문화의 변동수준으로 볼 때 미시적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1990년대는 구조기능측면에서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전·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유형으로서, 인식체계는 형성되어 있으나 아직 생활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제도체계·기술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이다. 체계기능 측면에서는 '개인적 목재문화체계'의 후반기로서 '조직적 목재문화체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갈등측면에서는 목재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시멘트문화와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문화의 변동수준으로 볼 때 중간적 변동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2000년대는 구조기능측면에서는 목재문화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전·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유형에 속한다. 체계기능측면에서는 '조직적 목재문화체계'의 초기단계에 진입한 사회이며, 갈등측면에서는 목재문화와 시멘트문화의 갈등이 심화되고 강렬해지는 단계이고, 문화의 변동수준으로 볼 때 중간적 변동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상과 같이 목재문화를 사회학적으로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방법과 공학적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빠른 시일내에 "목재문화론" 또는 "목재문화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Tylor, E. 1871. Primitive Culture.
2. Kroeber, A. and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3. 강신태. 1991.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박영사. p330.
4. Terner, J. H., 정태환의 4인 공역, 「현대 사회학이론」, 서울: 나남출판, 2001. p.105.
5. 윤덕중, 1998. 현대사회학. 형설출판사. p.38.
6. 김영찬, 1980. 생활·문화·교육. 교육과학사. p.109.